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지적인 사람들의 모임

1주차	일시	9월 21일 23 : 00 비대면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지훈(2493015)	○
		이학현(2431052)	○
		임선아(2492002)	○
		최민서(2311119)	○
함승주(2151003)	○		
진도	도서명: 모순	진도페이지: p.9 ~ p.22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임선아, 함승주, 김지훈, 이학현, 최민서]</p> <p>구글미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1회차 모임을 진행했다.</p> <p>최민서: 책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아직 배송이 안 와서 독서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오늘은 독서클럽을 언제 진행할지, 무엇을 할지 전반적인 스케줄 정리를 하려고 한다.</p> <p>함승주: 다들 시간표를 보니 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수요일 1시 반에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p> <p>이학현: 본격적으로 독서토론을 할 때에는 비대면으로 하면 의견 표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1회차 이후에는 모두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임선아: 동의한다. 2회차는 중간고사 기간이 되기 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후 3, 4회차를 진행하면 좋겠다.</p> <p>김지훈: 그러면 2회차를 25일에 바로 진행하고, 시간이 촉박하니 교수님과는 3, 4회차 때 함께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다.</p> <p>최민서: 2회차 일정이 촉박하니 5장까지만 읽어오고, 2회차 때는 함께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3회차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다.</p> <p>이후 3, 4회차를 언제 진행할지도 정한 후, 남은 시간 동안 짧지만 함께 독서를 하며 마무리했다.</p>		

2주차	일시	9월 25일 13 : 30 학술정보관 3층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지훈(2493015)	O
		이학현(2431052)	O
		임선아(2492002)	O
		최민서(2311119)	O
	함승주(2151003)	O	
진도	도서명: 모순	진도페이지:	p.23 ~ p.180
토론 내용	 <p>[좌측부터 함승주, 김지훈, 임선아, 이학현, 최민서]</p> <p>8장까지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나 느낀 점을 공유하고 가벼운 토론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았다.</p> <p><생각 공유> 이학현: 초반에 나온 진진의 자기성찰 부분이 사춘기 때 했던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공감이 됐다. 최민서: 안진진과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지럽지 않고 그게 다 진진의 삶을 설명해 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게 신기했고 그래서 잘 읽었던 것 같다. 등장인물 중에서 확실한 악역이나 선역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함승주: 진모의 조폭 코스프레 장면이 재밌었다. 진진과 진진 가족의 불행의 원인은 모두 진진의 아버지 때문인 것 같고, 진진의 아버지 옹호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졌다. 김지훈: 왜 진진은 결혼기념일에 엄마를 찾아가지 않고 우연이라는 핑계로 이모네 집에 가는 걸까? 최민서: 진진은 아버지가 부재한 이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드려봤자 기뻐하지 않을 걸 알아서 이모에게 간 것 아닐까? 임선아: 이모는 진진을 불쌍하게 여긴 것 같다. 자식이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진진이 겹쳐 보였을 것 같고 불행한 상황을 겪는 진진이를 돕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런데 자식이 한국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진진보다 자식을 더 챙기고 싶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닐까?</p>		

<p>2주차</p>	<p>토론 내용</p>	<p><가벼운 토론></p> <p>최민서: 진진이 한 사람과 무조건 이어져야 한다면 영규가 좋은가 장우가 좋은가?</p> <p>함승주: 나는 장우를 고르겠다. 장우는 서툰 면이 있어도 진진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데 영규는 너무 계산적이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p> <p>임선아: 둘 다 별로긴 한데, 장우는 진진이 더 주체적일 수 있어지는 대상이고, 영규는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영규 앞에서는 진진이 자신의 치부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게 좋은 것 같다.</p> <p>이학현: 나는 영규가 마음에 안 든다. 연애에 있어 너무 계산적인 사람은 별로다. 약간 불확실성도 있는 게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다.</p> <p>김지훈: 불행을 과장해서 살아간다는 진진의 어머니를 묘사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p> <p>최민서: 어머니가 이제는 불행과 싸울 전의를 잃은 건 아닐까? 그래서 이 불행은 내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체념해버리는게 어머니가 불행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것 같다.</p> <p>김지훈: 그런데 작중에서 어머니는 일본어도 배우고 아버지를 고치겠다고 정신과 책도 사고 한다. 체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p> <p>함승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 책의 이름이 그래서 모순이지 않을까.</p> <p>임선아: 불행의 과장법은 자신의 상황이 남들보다 더 불행하다는 걸 강조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어머니의 방어기제인 것 같다.</p> <p>임선아: 이모부에 대해선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p> <p>김지훈: 이모부도 영규처럼 재미없다.</p> <p>함승주: 그래도 좋은 분이신 것 같다. 진진의 집에 계속 금전적 지원을 해 주고 값으라는 독촉도 안 하지 않나.</p> <p>최민서: 이모부가 이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p> <p>이학현: 나는 사랑한다고 느꼈다.</p> <p>김지훈: 사랑하니까 돈도 계속 벌어오는 게 아닐까?</p> <p>임선아: 그런데 이모를 너무 차갑게 대한다.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도 있다.</p>
------------	--------------	--

3주차	일시	11월 6일 13 : 30 학술정보관 4층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지훈(2493015)	O
		이학현(2431052)	O
		임선아(2492002)	O
		최민서(2311119)	O
		함승주(2151003)	O
진도	도서명: 모순	진도페이지: p.181 ~ p.307 (완독)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임선아, 함승주, 주지영 교수님, 김지훈, 이학현, 최민서]</p> <p>책을 끝까지 다 읽은 후, 각자 궁금한 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생각해 온 토론 주제를 골라 토론을 진행했다.</p> <p><궁금한 점></p> <p>1. 진진의 이모는 왜 자살했는가? 최민서: 너무 놀랐지만 사실 이해는 됐다. 이모는 자신의 삶이 너무 지리멸렬해서 벗어나고 싶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좌절한 것 같다. 이모가 이 삶을 벗어나길 수 없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식에 있다고 본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은데, 자식들은 다 외국에 가 있어서 만나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이모는 외국에서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욕망을 밀어붙이지도 못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자살을 택한 것은 아닐까. 이학현: 이모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자신의 삶에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아서 현실 도피, 해방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 함승주: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다. 자살을 본인의 불행한 삶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p> <p>2. 진진은 왜 장우 대신 영규를 선택했는가? 함승주: 진진이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때문에 진진이 영규보다 장우를 더 사랑한 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짓말이 쌓이다 보니 이제 장우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기 싫어서, 장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남겨주고 싶어서 영규를 선택한 것 같다.</p>		

<p>3주차</p>	<p>토론 내용</p>	<p>이학현: 진진은 이모의 죽음을 겪고 생각이 바뀐 것 같다. 이모부 같은 영규를 택함으로써, 이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문장이 진진의 부정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다.</p> <p>3. 이 책의 제목이 왜 <모순>인 걸까? 최민서: 진진의 삶과 선택 자체가 다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꼭 진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물의 인생도 충분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했다. 이학현: 모든 사람이 다 입체적이어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p> <p>4. 과연 인물들의 삶을 모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임선아: 책 속 인물들이 모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항상 인생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과연 이걸 모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책 속 인물들을 모순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모순이라는 단어 하나로 간혀 있게 만드는 행위가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p> <p><토론></p> <p>1.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건 시련과 고난뿐인가? 최민서: 이모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삶이지만 자살을 했고, 어머니는 삶에서 계속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다시 일어난다. 마치 불행이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데 불행 요소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김지훈: 불행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행을 겪으면 다른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도 쉬워질 것이고,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함승주: 불행은 좋게 생각하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평탄한 삶만 살아가면 이모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으니 적당한 불행은 필요한 것 같다. 임선아: 시련과 고난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진의 어머니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련과 고난이 원동력이라기보단 그로 인해 다른 것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학현: 동의한다. 삶에 아무런 이벤트도 없으면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낄 것 같은데 적당한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p> <p>2. 진진의 어머니의 삶이 더 불행한가, 이모의 삶이 더 불행한가? 김지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모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머니처럼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다. 이학현: 어머니는 너무 불행을 과장하고, 이모는 너무 행복을 과장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래도 불행을 과장하는 쪽은 약간 삶의 원동력이 돼서 둘의 운명이 달라진 것 같다.</p>
------------	--------------	---

<p>3주차</p>	<p>토론 내용</p>	<p>함승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는 계속 살아있고 이모는 자살을 했으니까 이모의 삶이 더 불행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p> <p>주지영 교수님: 이모의 마음이 더 지옥같았을 것 같다. 서로 지옥에 살고 있는 건 같은데, 한쪽은 지옥의 형상이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고 한쪽의 지옥은 내면에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럼 후자가 아무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니까 더 외로울 것 같다.</p> <p>3. 진진도 이모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p> <p>임선아: 그래도 책 내용을 보면 영규가 진진의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보여서 이모부보다는 좀 더 다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운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p> <p>김지훈: 동의한다. 진진은 아버지 문제도 그렇고, 동생 문제도 그렇고 여러 사건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이모가 느꼈던 지루함, 무력감을 그 정도로 심하게 느낄 것 같지는 않다.</p> <p>최민서: 근데 읽다 보면 진진의 삶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것 같은데, 초반에 진진이 자신의 삶에 양감이 없다는 표현을 한다. 이미 진진은 자신의 삶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를 타개하려면 장우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규를 선택했다는 것에서 진진의 삶이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모랑 비슷하게 불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p> <p>이학현: 동의한다. 결말 부분이 삶에 양감이 없다고 한 진진의 도입부의 말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아서 베드엔딩으로 끝나겠다는 예상을 했다.</p> <p>임선아: 하지만 이모는 어려서부터 평탄을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진진과 다르기 때문에 진진도 꼭 같은 운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진진은 이모와 달리 그 지루함을 즐길 수도 있지 않나.</p> <p>함승주: 이모의 지루한 삶이 결혼을 통해 시작된 거면 진진도 그 결혼을 시작으로 지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p> <p>4. 자살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p> <p>이학현: 이모의 자살이 소설 <짧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떠올리게 했다. 그 책이 나온 이후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고 들었다. 이 책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p> <p>최민서: 사실 자살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약간 냉소적으로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나'는 반드시 한 명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결을 끊어 버리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p> <p>임선아: 비슷하게 생각한다. 내 목숨이고, 내 선택으로 정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주변인에게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당화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도 생겨난 것 같다.</p>
------------	--------------	---

4주차	일시	11월 20일 13 : 30 학술정보관 4층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지훈(2493015)	X
		이학현(2431052)	O
		임선아(2492002)	O
		최민서(2311119)	O
	함승주(2151003)	O	
진도	도서명: 모순	진도페이지: 완독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임선아, 함승주, 주지영 교수님, 이학현, 최민서]</p> <p>※김지훈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으나, 메시지로 자신의 의견을 먼저 보내주었다. 독서 이후 활동으로 각자 제시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p> <p>1. 내 인생에 어떤 모순이나 고민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앞으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기</p> <p>김지훈: 무기력하고 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정작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래너를 작성하거나 할 일이 끝나면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등 작은 습관을 들여 점차 고쳐나가려는 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p> <p>이학현: 일상의 행복에 집중하다 보니 소소한 걸로도 잘 행복해지는데, 반대로 소소한 걸로 기분이 안 좋아져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게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p> <p>함승주: 나는 인생의 큰 목표를 하나 세워두고 그 목표를 세세하게 쪼개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최근 목표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하기 싫어지는 모순을 최근 느끼고 있다.</p> <p>최민서: 나는 사실 이과였기 때문에 한성대 인문학부로 입학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나도 큰 인생 목표가 있었는데, 입학과 동시에 그게 전부 사라졌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서 신기했다. 너무 목표가 견고하다 보면 여기에 매몰되는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다. 삶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옳고 그른 건 없으니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p> <p>임선아: 일단 대학을 오고 나니까 1학년한테 진로를 정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고 모순적인 것 같다. 나도 원래 선택했던 진로의 방향성과 전혀 다른 과에 진학을 하게 돼서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타인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오히려 다시 꿈이 없어지는 기분도 든다. 또한 비슷한 진로를 가진 사람들의 성취를 보고 내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좌절감이 좀 심해지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다.</p>		

<p>4주차</p>	<p>토론 내용</p>	<p>2.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p> <p>이학현: 행복은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삶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부분을 종교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각자만의 방식을 통해 채워가는 과정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p> <p>최민서: 행복은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불행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만족감을 느끼면 무언갈 더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삶이 충분히 풍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p> <p>함승주: 행복은 사소한 순간들에서 찾아오는 것 같다. 행복을 거창하게 정의할수록 더 얻기 힘들어진다. 추운 데에서 따뜻한 곳으로 들어왔을 때 느끼는 기분, 이런 순간들에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오는 감정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p> <p>임선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웃음, 재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에 다른 걸 걱정하거나 즐기지 못하는 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 같다.</p> <p>김지훈: 가족의 건강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평소에는 잘 잊고 사는 것 같다. 작년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한 번 가족의 건강의 중요성을 느꼈다.</p> <p>3. <모순> 속 나에게 와닿은 문장과 이유</p> <p>이학현: 9쪽 “어느 날 아침 문득, … 꼭 그래야만 해!”</p> <p>이 문장을 읽을 때 진로 관련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할 때여서 공감이 됐고, 읽자마자 약간 갑자기 우울해지고 불쾌한 감정이 확 들어서 인상깊었다.</p> <p>296쪽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 그것이 인생이다…….”</p> <p>책 첫 번째 문장이랑 연결되는 느낌도 받았고, <모순>이라는 책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문장인 것 같아 골랐다.</p> <p>김지훈: 256쪽 “인생은 짧다. 그러나 삶 속의 온갖 괴로움이 인생을 길게 만든다.”</p> <p>인생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시간을 늘어뜨려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같다. 괴로움은 분명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없는 삶을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며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다.</p> <p>함승주: 218쪽 “사랑은 그 혹은 그녀에게 … 욕망의 발현으로 시작된다.”</p> <p>나도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와닿았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근데 상대방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도 사랑해주니까 굳이 발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나태한 마음도 드는 것 같다.</p> <p>최민서: 127쪽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읽으면서 나도 남한테 받은 상처는 오래 생각하는데 남이 나한테 잘해줬던 거는 막상 오래 고마워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뜨끔했다. 내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p> <p>173쪽 “인생이란 때때로 … 주리는 정말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p> <p>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리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나도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주리의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p> <p>임선아: 199쪽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 느낌은 분명 사랑이었다.”</p> <p>사랑을 정의할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고 그걸 새롭게 자신의 언어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사랑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사랑이 꼭 찬 느낌이고 나의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허허한 느낌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깊었다.</p>
------------	--------------	---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김지훈 (2493015)	<p>모순이라는 소설은 삶의 여러 단면을 깊이 있게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삶을 통해 사랑,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이 깊이 있게 그려졌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p>
	2	이학현 (2431052)	<p>이번 독서클럽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책 읽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간단한 서평 정도에 멈췄다면 이번 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마지막 주차에 있는 자신의 행복 정의하기가 있었는데 그 활동을 통해 그 전에 썼던 내 일생을 되돌아보고 1년 전쯤에 고난 속에서 정의했던 행복의 정의를 다시 상기하며 그 행복이 현재에 적용되는지 의구심을 품은 채 끝났습니다. 이 활동은 저에게 철학적 사회적 질문을 던져준 것 같아서 엄청 뜻깊은 활동이었어요</p>
	3	임선아 (2492002)	<p>오랜만에 모임원들과 한 책을 읽고 책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소설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설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p>
	4	최민서 (2311119)	<p>삶과 맞닿아 있는 책을 주제로 독서 토론을 해 본 건 처음이었는데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할 거리가 많아져서 재미있었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깊게 탐구해본 적이 없었는데 짧다면 짧은 책을 가지고 많은 주제와 의견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책을 읽고 나면 재미있었다라는 감상에서 그치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유익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덕분에 내면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다가 삶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진진'처럼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며 이것의 답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p>
	5	함승주 (2151003)	<p>책을 가끔 읽는 편이었지만, 독서클럽에 참여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서클럽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끌려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클럽 활동을 통해 다 같이 읽을 책을 선정하고, 각자 읽은 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며, 매 순간이 뜻깊고 배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서로의 관점이 다를 때도, 때로는 일치할 때도, 각자의 생각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요로울 수 있는지 깨닫는 경험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더 나아가, 단 한 권의 책이 수많은 사고의 갈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책을 읽는다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생각의 폭을 넓히고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독서클럽은 단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이 만나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활동이 앞으로도 제 독서 습관과 사고의 깊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p>